

확증된 약속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음이라’ 하셨다.”

창세기 17:3-5

창세기의 기록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페이지들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임할 축복의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성경 전체의 기록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고찰에서는 창세기 16장, 17장, 18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세 장에서, 후에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된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할 때,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후손, 곧 씨를 갖게 될 것이었다. 이 약속이 조상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 그의 아내 사래(나중에 사라라 불림)는 아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1

기다림은 길었다. 우선, 약속이 주어진 시점부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 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사라는 불임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꽤 들어, 약속된 씨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씨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깊이 곱씹으며, 가능하다면 주님과 협력하고자 했던 그녀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이 아브람의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되도록 제안했다. 오늘날의 기독교적 기준으로는 이것이 비윤리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부적절한 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사라나 아브람을 책망하지 않으셨으나, 이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를 약속된 후손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6:2,3

그러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라의 제안은 이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알게 되자마자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이 평가되었기에, 하갈은 자신이 사라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16:4

사라는 이 상황을 아브람에게 알리며 “내 잘못은 네게 있다”고 외쳤는데, 이는 일어난 일의 책임을 아브람에게 돌리려는 시도였다(창세기 16:5). 사라는 처음에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의 양모가 되고, 하갈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제 사라는 하갈의 태도를 보고 그런 식의 합의는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으며, 아브람을 위해 자손을 얻기 위해

이 방법을 제안했던 것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브람 또한 일이 그들이 바랐던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라이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녀가 하갈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처리하도록 허락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따르면, 사라는 하갈을 가혹하게 대했는데, 아마도 그녀의 의무와 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랬을 것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시행되던 법에 따르면 하갈을 팔아 없애는 것은 불법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마도 하갈이 가정을 떠나 도망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짐을 늘린 것이었을 텐데, 하갈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개입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의 천사, 즉 사자가 “수르로 가는 길가의 우물가”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수르는 이집트와 가나안을 가로막는 거대한 요새화된 성벽의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갈은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해 그녀에게 돌아가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6:7-9

그때 천사가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지극히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리라. ...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창세기 16:10,11) 역사가들은 중동 아라비아 국가들의 인구 상당 부분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데 상당히 동의하는 듯하다.

하갈은 주님의 천사가 찾아온 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녀를 만난 우물은 베엘라하이로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하갈은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깨달은 듯했고, 비록 아브람과 사래에게서 도망쳤지만 아브람의 하나님께서는 도망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창세기 16:13-16

이 경험에는 사라이를 위한 교훈이 있었으며, 사실 주님을 섬기려 애쓰는 모든 이에게도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시련을 피하려 애쓰거나 억지로 떨쳐내려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사래의 믿음 부족은 그녀의 삶에 심각한 시련을 가져왔고, 그녀는 하갈을 강제로 쫓아냄으로써 그 시련을 없애려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경험을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셨다. 아마도 그 경험은 하갈의 태도도 누그러뜨렸을 것이다. 어쨌든 성경 기록에 따르면, 두 여인은 그 후 15~17년 동안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언약 재확인

13년이 지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아브람이 “온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거나, 바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아브람은 타락하고 죽어가는 인류의 일원이었기에, 행실의 온전함은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가능한 일이며, 주님께서는 이보다 덜한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창세기 17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전에 맺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 내용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름에 부여된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주님께서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언약의 원래 선언은 약속된 씨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보장했으나, 이 구절들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그 생각을 더욱 확장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용어는 생명을 주는 이를 의미하며, 이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민족들이 받을 복이 곧 생명의 복임을 설명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그 “후손”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로마서 4:16-18). 이 후손 중 일부는 육신적인 후손이 될 것이고, 일부는 하늘의 후손이 될 것이나,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17:6). 수세기 후,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주된 성취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즉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6, 27-29; 골로새서 1:18).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의 교회는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10; 20:6

창세기 17:8은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그네” 즉, 거류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죽었고, 이삭이나 야곱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8-10,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회복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명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 중 일부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속에서 혼란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할례—하나님 언약의 표징

창세기 17:10-14에서,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향해 행했던 믿음의 “표징”이자, 동일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11, 12

신약성경에서 할례는 마음의 순수함과 목적의 청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문자 그대로의 할례 의식을 행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지만, 그들은 마음을 할례하고 육체의 모든 불순물을 버리라고 권고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요, 영으로 하는 것이요, 글자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림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느니라.” 로마서 2:29; 골로새서 2:11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 할례인 것은 적절하다.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을 고려할 때, 이는 주님 앞에서 마음과 동기의 순결,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율법의 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브라함 언약 아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라이의 이름 변경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15절과 16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계시하셨는데, 이는 그녀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므로 “귀부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왕들의 어머니로 여겨지는지를 설명하며, 이는 그녀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자라나는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상징적인 아버지인 바로 그 왕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왕들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해 천 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22-31

약속받은 이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큰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러한 순간

중 하나가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녀가 당시 훨씬 젊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임인 데다 그녀는 아흔 살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웃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심했음을 보여 주며, 땅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슈마엘이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했다. 이 간구의 뜻은 그가 약속의 후손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살아남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셨으나, 약속된 후손에 관해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며, 그가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 창세기 17:18-21

21절에 따르면 이삭은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의 예언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나, 그동안 그 기다림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징후도 주어지지 않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다림을 통해 대부분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께 “이 때에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7

종종 기대하던 사건이 일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주님께서서는 그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데 오랜 세월을 수고했으나, 홍수가 언제 닥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면 내가 비를 땅에 쏟아 부으리라.” (창세기 7:4).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내년 이맘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주님께서서는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확실한 정보를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7장의 마지막 구절들에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인 할례에 관한 주님의 지시에 신속히 순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날에”라고 기록된 대로, 그는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할례하게 하였다. (창세기 17:23-27). 성경에는 주님께서 신속한 순종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우, 그의 신속함은 또한 사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며, 언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세부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맘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했을 때 그와 함께했던 아모리 사람이었다(창세기 14:13). 창세기 18장 1절에서 “맘레의 평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맘레에게 속한 평원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단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맘레를 비롯한 많은 가나안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나중에 이 나타나심은 주님의 사자로 활동한 “세 사람”의 방문으로 밝혀진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였다.”(, 창세기 18:2). 이러한 표현 방식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류와 교제하실 때 꽤 자주 사용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다. (출애굽기 33:20).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실 때, 그분은 그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하며 대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바라신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 “세 사람”은 천사, 즉 영적 존재들이었으며, 족장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육체적 형상을 취한 것이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천사로 지칭하며, 암시적으로 아브라함의 환대를 본받을 만한 모범으로 제시한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2

아브라함의 환대

아브라함이 뜻밖의 손님들을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대접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한 도시의 대로변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원’ 한가운데, 천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천막 앞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날이 며칠씩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찾아왔고, 그들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임을 암시하는 모든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것이 특별한 사건으로 보였고, 그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무언가를 처리하고 싶을 때 지시를 내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이 특별한 방문객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손질하여 식사용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한 젊은이에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창세기 18:6,7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방문에 대해 어느 정도 흥분을 드러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가 “가축 떼에게 달려가” 직접 먹기에 부드러울 것을 알고 있는 송아지를 골랐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통한 방문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 남자를 그들이 밝힌 신분 이상의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어쨌든 그는 친절하고 관대한 주인임을

증명했으며, 사라도 기꺼이 그와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에게 전한 메시지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드는 역할을 맡았다(창세기 18:8). 식사 중에 세 사람은 사라의 행방을 물었다. 사라는 식사 준비를 도왔지만, 그때까지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자 방문객들의 대변인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다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18:10

분명히 천막은 그 사람들이 식사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즉, 우리가 말하듯이 “혼자서 웃었다.” 그러나 천사는 그녀가 웃은 것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그 일을 언급했을 때 사라는 부인했으나, 천사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말했다. 창세기 18:12-15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이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약속의 성취에 대한 책임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와 지난 수세기 동안의 교회는,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그 반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닳이 되어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1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들과 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관련된 일들에 대해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 넓게 말해, 진리로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 인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정신을 지니고 하나님의 계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그 계획에 대해 열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소돔 성의 극심한 악행 때문에 그 성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브라함이 그 성의 백성, 특히 그곳에 거주하던 자신의 친척인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겨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8:17,18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적 한계를 배려하시는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의역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매우 악하다는 보고를 들으셨기에 직접 내려와 조사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보고된 대로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지상에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말씀하신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생각을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특히 그곳에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도시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로운 사람이 오십 명만 발견된다면 그 도시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수를 줄여 나갔을 때, 아마도 롯과 그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23-32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숫자를 계속 낮추는 동안에도 그의 간청을 들어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인내심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뜻도 드러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필요한 10명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그 도시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창세기 19:24, 25

이는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그 도시들은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3, 24).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왕국의 심판의 날 기간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며,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그들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곧 성취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